

개체의 변화와 시간적 부분(Temporal Part)

손병홍 (한림대)

【요약문】 시간에 따른 개체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한 개체가 다른 시간에 서로 다른 속성을 소유할지라도 동일한 하나의 개체로 취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개체의 개별화를 위한 라이프니츠의 법칙에 적용될 경우 모순을 야기한다. 개체의 변화와 관련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 시도한 가장 대표적인 이론은 루이스의 이론이라 할 수 있다. 루이스는 개체의 변화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e-존속이론과 p-존속이론으로 구분되는데 자신의 이론인 p-존속이론만이 개체의 변화와 관련된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그의 이론도 시공 속에서의 개체들의 변화에 대한 실질적인 설명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시간적 부분이란 설명되지 않은 형이상학적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는 결정적 약점을 안고 있다.

【주요어】 동시공간적 동일성, e-존속이론, p-존속이론, 시간적 부분, 라이프니츠의 법칙

1.

시간 속에 존재하는 개체들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생명이 있는 유기체는 물론이고 돌과 같은 무생물들도 필연적으로 변화의 과정을 겪는다. 따라서 일정한 시간 t 에서 P 라는 속성을 가진 한 개체 a 는 t 이후의 일정한 시간 t' 에서는 P 대신에 Q 라는 속성을 가질 수 있다. 이처럼 한 개체 a 가 서로 다른 시간 t 와 t' 에서 상이한 속성을 소유할지라도 우리는 시간 t 에서의 a 와 시간 t' 에서의 a 를 동일한 하나의 개체로 취급한다. 또한 시간 t 에서의 a 와 시간 t' 에서의 a 를 동일한 하나의 개체로 취급해야 만이 개체 a 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한 예로 20세 때 장발이었던 철수가 35세에 대머리가 되었을지라도 철수 자신은 물론 우리들은 20세 때 장발이었던 철수와 35세 때 대머리로 바뀐 철수를 '철수'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부르며 동일한 사람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한 개체 a 가 시간 t 에서 t' 을 거쳐 변화했을지라도 t 에서의 a 는 t' 에서의 a 와 동일한 개체로 존속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개체의 동일성을 결정하는 원리로 사용되는 법칙인 라이프니츠의 법칙을 적용할 경우 모순을 야기한다.

개체의 구별이나 개체의 동일성의 근거로 사용되는 라이프니츠의 법칙은 구별

이 불가능한 개체들은 하나의 동일한 개체라는 ‘구별 불가능자의 동일성 원칙’과 동일한 개체는 구별이 불가능하다는 ‘동일자의 구별 불가능성의 원칙’의 두 가지로 구별된다. 구별 불가능자의 동일성 원칙과 동일자의 구별 불가능성 원칙은 2차 술어논리에서 각기 아래의 PII 와 CPII로 표현될 수 있다.¹⁾

PII: 구별 불가능자의 동일성 원칙

$$(\forall x)(\forall y)((\forall P)(Px \leftrightarrow Py) \rightarrow x=y)$$

모든 개체 x와 y에 대해서 x와 y가 모든 속성을 공유하고 있으면 x와 y는 동일한 개체이다.

CPII: 동일자의 구별 불가능성의 원칙

$$(\forall x)(\forall y)(x=y \rightarrow (\forall P)(Px \leftrightarrow Py))$$

모든 개체 x와 y에 대해서 x와 y가 동일한 개체이면 x와 y는 모든 속성을 공유하고 있다.

개체들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한 개체가 서로 다른 속성을 가졌을지라도 동일한 하나의 개체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라이프니츠의 법칙에 적용되었을 경우 모순이 발생한다.²⁾

- A)
- 1) t에서의 a와 t'에서의 a는 동일하다.
 - 2) t에서의 a는 P라는 속성을 t'에서의 a는 P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 3) CPII
-
- c) t'에서의 a는 P이고 P가 아니다.

한 개체 a가 일정한 시간 t에서는 속성 P를 또한 t이후의 시간인 t'에서는 P 대신에 다른 속성을 가졌다고 가정하면 A)의 전제 1)과 2)는 개체 a의 변화를 설명하

1) 개체의 개별화를 위한 라이프니츠의 법칙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아래의 글을 참조하라; 손병홍, 「라이프니츠의 법칙과 헤세이티즘」, 『논리연구』, 제2집, 1998.

2) 루이스(D. Lewis)를 위시하여 많은 철학자들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아래의 글들을 참조하라; D. M. Armstrong, "Identity through Time" in P. Van Inwagen(ed.), *Time and Cause* (Boston: Reidel, 1980), M. Jubien, *Ontology, Modality and Fallacy of Reference*(New York: Cambridge, 1933), J. M. E. Moravcsik, "The Discernibility of Identicals", *J. P.*(1976).

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들이다. A)의 1), 2), 3)으로부터 모순인 결론 c)가 연역적으로 도출된다.³⁾ A)에서 라이프니츠의 법칙을 준수하면서 모순을 야기하지 않으려면 t에서의 a와 t'에서의 a는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질 수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변화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시공 속의 개체는 끊임없이 변한다는 사실을 개체의 동일성과 관련된 라이프니츠의 법칙에 적용했을 경우 모순이 발생한다는 A)의 문제를 회피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A)의 전제 3)을 부정하는 것이다. 만약 통시간적 동일성 (시간 속에서 변화하는 개체의 동일성)의 경우 라이프니츠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할 경우 A)의 전제 1)과 2)로부터 c)와 같은 모순은 유도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이러한 해결방식을 선호하지 않는다. 개체들의 개별화를 위한 대표적인 법칙인 PII와 CPII는 철학만이 아니라 수학이나 논리학 등과 같은 순수과학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준칙이기 때문이다. 또한 PII와 CPII를 포기하는 것은 동일한 하나의 개체가 서로 구별될 수 있고 서로 구별되는 것이 동일한 하나의 개체라는 비직관적인 입장으로 인도 할 것이고 이러한 입장은 일정한 철학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명확한 논리적 원칙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⁴⁾ A)의 문제를 회피하는 두 번째 방식은 t에서의 a와 t'에서의 a는 동일한 하나의 개체라는 것을 PII와 CPII에 위배되지 않고 설명 할 수 있는 이론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이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 3) 1) $a=a'$
 2) $Pa \& \sim Pa'$
 3) $(\forall x)(\forall y)(x=y \rightarrow (\forall P)(Px \rightarrow Py))$

- | | |
|--|------------|
| 4) $(\forall y)(a=y \rightarrow (\forall P)(Pa \leftrightarrow Py))$ | 3, UI |
| 5) $a=a' \rightarrow (\forall P)(Pa \leftrightarrow Pa')$ | 4, UI |
| 6) $(\forall P)(Pa \leftrightarrow Pa')$ | 1,5, MP |
| 7) $Pa \leftrightarrow Pa'$ | 6, UI |
| 8) Pa | 2, Simp |
| 9) Pa' | 7,8, BE |
| 10) $\sim Pa'$ | 2, Simp |
| 11) $Pa' \& \sim Pa'$ | 9,10, Conj |

(여기서 a는 t에서의 a를 a'은 t'에서의 a를 나타낸다.)

4) 라이프니츠의 법칙이 필연적 참임을 주장하는 대표적 철학자들은 B. Brody, A. Whitehead와 B. Russell 등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들을 참조하라; B. Brody, *Identity and Essence*(Princeton Univ. Press, 1980), A. Whitehead & B. Russell, *Principia Mathematica to 56*(Cambridge Univ. Press, 1979), B. Russell, *An Inquiry into Meaning and Truth*(Baltimore: Penguin, 1972).

동시공간적 동일성의 문제를 두 번째 방식으로 해결하려 시도한 대표적인 철학자는 루이스(D. Lewis)이다. 그는 시간적 부분(temporal part)이란 개념을 도입하여 시공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개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려 시도하고 있다.⁵⁾ 루이스의 해결책은 철학자들에게 가장 주목받는 시도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개체의 변화와 동시공간적 동일성과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그의 시도를 엄밀히 분석하고 그의 시도가 이 문제와 대한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평가를 시도할 것이다.

2.

시공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개체가 동일한 개체로 존속했다는 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개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했는지라도 동일한 하나의 개체로 취급될 수 있어야 한다. 그의 책에서 루이스는 한 개체가 변화를 거쳐 하나의 동일한 개체로 존속했다고 할 때 ‘존속(persist)’이라는 개념은 ‘p-존속(perdure)’과 ‘e-존속(endure)’이라는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고 ‘존속’이 p-존속으로 해석돼야만 A)에서와 같은 모순을 야기하지 않고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p-존속과 e-존속에 대한 루이스의 설명은 B)처럼 정리될 수 있다.⁶⁾

B)

- P-존속: 1) 개체는 시간적 부분(temporal part)을 가진다.
 2) 한 순간에서의 한 개체는 그 개체의 그 순간에서의 시간적 부분이다.
 3) 한 개체는 서로 다른 시간적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한 개체는 그 개체의 시간적 부분들로 구성된 전체이다.
 4) 한 개체는 다양한 시간적 부분들을 가짐에 의해 변화를 통해 존속한다.

5) 루이스의 이론을 위해서는 아래의 글들을 참조하라; D. Lewis, *On the Plurality of Worlds*(Oxford: Basil Blackwell, 1986), 202~204쪽, D. Lewis, *Papers in Metaphysics and Epistemology*(Cambridge Univ. Press, 1999), Chap. 11.

6) 루이스는 ‘persist’를 ‘perdure’와 ‘endure’로 구별하고 ‘perdure’로서의 존속이 개체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의 p-존속과 e-존속은 각기 루이스의 설명에 따른 ‘perdure’와 ‘endure’에 해당한다. Lewis의 *On the Plurality of Worlds*, 202쪽.

- e-존속: 1) 개체들은 시간적 부분들을 가지지 않는다.
 2) 한 순간에 한 개체가 존재한다면 그 순간에 그 개체는 전체적으로 전적으로 (wholly) 존재한다.
 3)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개체는 매 순간 전체적으로 전적으로 존재한다.

B)에서 볼 수 있듯이 개체의 시간적 부분을 인정하느냐의 여부가 p-존속과 e-존속의 핵심적 차이점이다. p-존속의 경우 한 개체 a가 일정한 시간 t에서 P라는 속성을 가지고 t 이후의 시간 t'에서 P대신에 Q라는 속성을 가졌을 경우 t에서 P라는 속성을 가진 a는 a자체가 아니라 t에서의 a의 시간적 부분이고 t'에서 Q라는 속성을 가진 a는 t에서의 a의 시간적 부분과 구별되는 t'에서의 a의 시간적 부분이다. 또한 개체 a 자체는 무수한 시간적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t에서 t'를 거친 개체 a의 변화는 시간적 부분들로 구성된 개체 a가 t에서는 속성 P를 가진 시간적 부분과 t'에서는 속성 Q를 가진 시간적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에 의해 설명된다. 반면에 시간적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는 e-존속의 경우에는 a가 P라는 속성을 가진 t에서도 a가 Q라는 속성을 가진 t'에서도 a의 시간적 부분이 아니라 a 자체가 전적으로 전체적으로 존재한다.

변화를 거쳐 동일한 하나의 개체로 존속했다는 것을 p-존속으로 설명할 경우 A)에서 보았던 모순은 쉽게 회피될 수 있다. p-존속에 따른 설명에 의하면 A)의 전제 2)에서 언급되는 t 시간에서의 a는 t에서의 a의 시간적 부분이고 t' 시간에서의 a는 a 자체가 아니라 t'에서의 a의 시간적 부분인데 t에서의 a의 시간적 부분과 t'에서의 a의 시간적 부분은 a를 구성하는 구성요소들일 뿐 서로 다른 독립적인 대상들이다. 따라서 A)의 전제 1)은 't에서의 a와 t'에서의 a는 p-존속하는 하나의 개체 a의 시간적 부분들이다'로 고쳐져야 하고 이 경우 A)의 c)와 같은 모순은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p-존속에 의하면 P와 Q라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속성들을 소유한 것은 a 자체가 아니라 a의 각기 다른 시간적 부분들이기 때문이다.

루이스는 변화를 거쳐 동일한 하나의 개체로 존속했다는 것을 e-존속으로 설명하는 이론들은 속성들을 시간과의 관계로 해석하는 이론과 현재만을 진정한 시간으로 취급하는 이론의 두 종류로 구분되는데 두 이론 모두 시공 속에서 변화하는 개체들을 설명하는데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입장을 시간적인 내재적 속성(temporary intrinsic property)에 의거하여 설명하

고 있다.⁷⁾ 루이스는 ‘곧다(being straight)’와 ‘굽었다(being bent)’와 같은 내재적 속성을 사용하여 A)에서와 유사한 모순을 도출해 내고 있다. 만약 한 개체 a가 일정한 시간 t에서 앉아 있었고 t이후의 일정한 시간 t'에서 서 있었다면 t에서 a의 몸은 굽었을 것이고 t'에서 a의 몸은 곧았을 것이다. 이 경우에 t에서 a의 몸은 굽었고 t'에서는 동일한 a의 몸이 곧다는 사실을 라이프니츠의 법칙에 적용하면 모순이 야기된다는 것이 C)처럼 재구성될 수 있다.

C)

- 1) t에서의 a와 t'에서의 a는 동일하다.
- 2) t에서의 a는 B(굽었다)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t'에서의 a는 B 대신에 S(곧다)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t'에서의 a는 B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 3) CII

c) t'에서의 a는 B이고 B가 아니다. (t'에서의 a는 B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B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개체의 변화를 p-존속으로 설명할 경우 t에서의 a와 t'에서의 a는 시간적 부분들로 구성된 a의 서로 다른 시간적 부분들이므로 전제 1), 2), 와3)으로부터 결론 c)와 같은 모순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에 루이스에 따르면, 속성들을 시간과의 관계로 처리하는 이론과 현재만을 진정한 시간으로 취급하는 개체의 변화를 e-존속으로 설명하는 두 이론은 모두 C)에서와 같은 모순을 회피하려는 시도이나 이러한 시도들은 모두 보다 근본적인 다른 문제들을 야기한다.

2.1 속성을 시간과의 관계로 해석하는 e-존속이론

루이스에 따르면 속성을 시간과의 관계로 해석하여 e-존속을 설명하는 이론의 핵심논제들은 아래와 같이 정리 될 수 있다.⁸⁾

7) 루이스의 설명에 따르면 시간적인 내재적 속성이란 시간에 따라 소유할 수도 소유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른 어떤 것과의 관계에도 독립적이고 자신의 존재 방식에 내재된 속성이다. 앞의 책, 202~204쪽.

8) 같은 책, 204쪽.

D) 속성을 시간과의 관계로 해석하는 e-존속이론의 핵심논제

- 1) 개체들은 p-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e-존속한다.
- 2) e-존속하는 개체들은 시간적 부분을 가지지 않고, 존재하는 때 순간마다 전적으로 전체적으로 존재한다.
- 3) 모든 속성들은 시간에 대한 관계로 취급되어야 한다.⁹⁾

D)의 핵심논제 3)에 따르면 개체가 소유한 모든 속성은 시간에 대한 관계로 해석되어야 한다. 한 예로 '시간 t에서 길동이는 장발이다'는 '길동이는 시간 t에 대해 장발이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Lat)'로 해석되어야한다. 따라서 C)의 2)는 아래의 C)의 2')처럼 재해석되어야 한다.

C), 2') a는 t에 대해 B(굽었다)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고 a는 t'에 대해서 S(곧다)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a는 t'에 대해 B라는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C)의 2)가 C)의 2')처럼 재해석되었을 경우 C)의 c)와 같은 모순이 유도되지 않는다. 이 이론에 따르면 모든 속성은 시간에 대한 관계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C)의 2)가 C)의 2')로 대체되었을 경우 C)의 1)과 2'), 3)으로부터 유도되는 결론은 C)의 c)가 아니고 기껏해야 C)의 c')일 것이기 때문이다.

C), c') a는 t에 대해 B의 관계를 가지고 a는 t'에 대해 B의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Bat&~Bat').¹⁰⁾

앞에서 본 것처럼 모든 속성을 시간에 대한 관계로 해석할 경우 C)에서와 같은 모순은 회피될 수 있다. 그러나, 루이스에 따르면, 이러한 해결책은 '속성'과 '관계'에 대한 우리의 건전한 직관에 근본적으로 위배된다. 우리는 '굽었다'나 '곧다'와 같은 개체의 모양과 관련된 속성은 다른 어떤 것과의 관계에도 독립적이고 자신의 존재방식에 내재된 내재적 속성으로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 해결책에서는 개체의 모양과 같은 대표적인 내재적 속성도 관계로 취급되어야하고 이것은 속성과 관계에 대한 우리의 건전한 직관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9)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철학자는 Van Inwagen이다. P. Van Inwagen, "Four-dimensional Objects", *Nous* (1990).

10) Bat와 ~Bat'은 모순이 아니다. Bab와 ~Bac가 모순이 아닌 것처럼 '~Bat'에서 a는 시간 t가 아닌 다른 시간 t'에 대해 B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 해결책에 따르면 시간에 대한 관계로 해석되어야만 할 속성과 다른 어떤 것과의 관계에도 독립적인 내재적 속성 사이의 구별도 성립되지 않는다. 한 예로 개체의 나이와 같은 속성은 시간의 경과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시간에 대한 관계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해결책에서는 ‘끝다’와 같은 내재적인 속성도 개체의 ‘나이’와 마찬가지로 시간에 대한 관계로 해석되어야 한다. 결국 이 해결책에 따르면 다른 어떤 것과의 관계에도 독립적인 내재적인 속성도 시간에 대한 관계로 해석되어야 할 속성과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할 수 있다.¹¹⁾

2.2 현재만을 진정한 시간으로 간주하는 e-존속이론

루이스에 따르면 과거와 미래는 가공의 시간이고 현재만을 진정한 시간으로 해석하여 e-존속을 설명하는 이론의 핵심 논제들은 아래의 E)처럼 정리될 수 있다.¹²⁾

E)

- 1) 진정한 시간은 현재뿐이고 과거와 미래는 가공의 시간이다.
- 2) 개체의 모양과 같은 내재적 속성들은 다른 어떤 것과의 관계에도 독립적이다.
- 3) 우주 속의 개체들은 다른 어떤 것과의 관계에도 독립적으로 또한 직접적으로 내재적 속성들을 소유한다.
- 4) 한 개체가 소유하는 내재적 속성들은 현재 그 개체가 소유하고 있는 속성들에 국한된다.
- 5) 과거와 미래와 같은 가공의 시간들은 현재를 표상하거나 잘못 표상한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진정한 시간은 현재뿐이고 과거와 미래는 현재를 표상하는 기능을 하는 가공의 시간이다. 이처럼 현재만을 진정한 시간으로 간주할 경우 C)

11) 루이스는 개체가 소유한 속성은 시간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부사주의(Adverbialism)도 크게 볼 때 2.1에 속하는 이론으로 간주하고 있다. 부사주의를 위해서는 아래의 글들을 참조하라; S. Hallsinger, "Endurance and Temporary Intrinsic", *Analysis* (1989), M. Johnston, "Is There a Problem about Persistence",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Supp. Vol. LXI (1987).

12) 이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R. Chisholm과 T. Merrick과 같은 철학자들은 시제를 중시하는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R. Chisholm, *Person and Object*(LaSalle, IL: Open Court, 1976), T. Merrick, "Endurance and Indiscernibility", *J. P.* (1994).

에서와 같은 모순은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t' 이 현재라면 C)의 2)에서의 ' t' 에서 a 는 s 이다'만이 개체 a 가 내재적 속성인 B대신에 S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뿐 ' t' 에서 a 는 B이다'는 가공의 시간 t 가 현재의 a 를 잘못 표상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루이스는 현재만을 진정한 시간으로 간주하여 e-존속을 설명하는 이론은 속성을 시간에 대한 관계로 e-존속을 설명하는 이론보다 나쁜 이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과거와 미래는 실제의 시간이 아니라 가공의 시간에 불과하다는 입장은 시간 속에서의 개체의 변화와 관계된 우리들의 건전한 직관에 직접적으로 위배되기 때문이다. 개체의 변화의 경우 일정한 시간으로부터 다른 시간으로의 시간적인 경과가 전제된다는 것이 변화에 대한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직관이다. 그러나 이 이론에서는 현재 이외의 다른 시간들은 실제의 시간들이 아니고 단지 현재를 표상하거나 잘못 표상하는 가공의 시간에 불과하다. 따라서 과거의 일정한 시간 t 로부터 현재의 시간 t' 을 통한 개체의 변화의 경우 현재의 시간 t' 이외의 다른 시간이 개입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이론은 개체의 변화란 시간적 경과를 전제한다는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직관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개체의 변화의 경우 시간적인 경과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면 과거와 미래는 현재를 표상하는 가공의 시간이라는 입장은 변화에 대한 설명을 실질적으로 표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¹³⁾

3.

2)에서 보았듯이, 루이스에 의하면 e-존속으로 시간 속에서의 개체의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들은 속성을 시간에 대한 관계로 해석하는 이론과 현재만을 진정한 시간으로 취급하는 이론의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 두 이론은 모두 변화하는 개체를 동일한 개체로 취급할 경우 야기되는 모순을 회피할 수 있지만 그 결과로 보다 근본적인 논리적, 철학적 문제점을 야기한다. 따라서 그는 e-존속이론은 통시간적 동일성을 설명하는 적절한 이론이 될 수 없고 오직 p-존속을 옹호하는 자신의 이론만이 변화와 통시간적 동일성을 라이프니츠의 법칙에 위배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이라 주장하고 있다.¹⁴⁾ p-존속을 주장하는

13) 루이스 이외에 E. J. Lowe도 이와 유사한 입장에서 이 이론을 비판하고 있다. E. J. Lowe, "Lewis on Perdurant versus Endurance", *Analysis* (1987).

14) 루이스의 앞의 책, 204쪽.

그의 이론의 핵심논제들은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F) 루이스의 p-존속이론의 핵심논제

- 1) 시공 속의 개체들은 시간적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다.
- 2) 한 개체는 존재하는 시간마다 전체적으로 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 3) 한 개체가 존재하는 일정한 한 순간에는 그 개체의 시간적 부분이 존재한다.
(일정한 시간 t에서 한 개체 a가 존재한다면 시간 t에서는 t에서의 a의 시간적 부분이 존재한다.)
- 4) 일정한 시간 t에서의 a와 t와는 다른 시간 t'에서의 a가 동일하다는 것은 일정한 시간 t에 존재하는 시간적 부분과 t'에 존재하는 시간적 부분이 모두 한 개체 a를 구성하는 시간적 부분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루이스의 이론에서는 시공 속에 존재하는 개체의 변화가 라이프니츠의 법칙에 위배되지 않고 모순 없이 설명된다. F)의 논제에 따르면 C)의 각각의 전제들은 G)처럼 재해석되어야 한다.

G)

- 1) 일정한 시간 t에서의 a는 t에서의 a의 시간적 부분이고 다른 시간 t'에서의 a는 t'에서의 a의 시간적 부분인데 t에서의 a의 시간적 부분과 t'에서의 a의 시간적 부분은 모두 p-존속하는 a의 시간적 부분들이다. (t에서의 a와 t'에서의 a는 동일하다.)
- 2) t에서의 a의 시간적 부분은 B(굽었다)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t'에서의 a의 시간적 부분은 B 대신에 S(곧다)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 3) CPII

쉽게 알 수 있듯이 G)의 1), 2)와 3)으로부터는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 개체 a의 시간적 부분은 오직 한 순간에만 존재하므로 시간 t에서의 a의 시간적 부분과 시간 t'에서의 a의 시간적 부분은 개체 a를 구성하는 서로 다른 시간적 부분들이다. 따라서 t에서의 a의 시간적 부분과 t'에서의 a의 시간적 부분은 서로 다른 대상들이고 이들 둘이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라이프니츠의 법칙에 위배되지 않고 모순도 발생하지 않는다. 루이스의 이론에서는 't에서의 a와 t'에서의 a는 동일한 개체이다'라는 C)의 전제 1)이 의미하고 있는 '개체의 변화를 인정하되

동일한 개체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대상들인 t 에서의 a 의 시간적 부분과 t' 에서의 a 의 시간적 부분이 p -존속하는 개체인 a 를 구성하는 시간적 부분들이라는 것에 의해 설명되기 때문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루이스는 속성을 시간에 대한 관계로 해석하는 e -존속이론은 속성과 관계에 대한 우리의 건전한 직관에 위배되고 현재만을 진정한 시간으로 취급하는 e -존속이론은 개체의 변화를 실제로 설명하는 이론이 될 수 없다고 e -존속이론을 비판하고 있다. e -존속이론에 대한 루이스의 비판은 비교적 설득력을 가진 비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시간적 부분이라는 설명되지 않은 신비한 형이상학적 개념에 의거해서 변화를 설명하는 루이스의 이론도 이들 두 이론에 못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거나 일정한 관점에서는 이들 두 e -존속이론보다 더 심각한 철학적·논리적 문제점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루이스의 이론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들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 세 가지만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

우선 루이스의 이론은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한 형이상학적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2.1에서 보았듯이 첫 번째 e -존속이론은 내재적 속성을 시간에 대한 관계로 취급해야하고 이점이 이 이론에 대한 루이스의 비판의 핵심이다. 이에 반해 루이스의 p -존속이론에서는 개체들은 시간적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시간적 부분들에 의거하여 변화가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시공 속에 존재하는 사람이나 나무 같은 개체들이 시간적 부분들로 구성되어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속성을 관계로 취급하는 것에 못지 않은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시간의 경과를 요하는 사건이나 진행과정 같은 것들이 시간적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체들 자체가 시간적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때 개체들의 '시간적 부분'이란 쉽게 이해될 수 없는 신비한 형이상학적 개념이다.¹⁵⁾ 또한 개체들의 구성요소로서 '시간적 부분'이란 것을 받아들이면 이에 따라 개체들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도 달라져야 한다. 따라서 루이스의 이론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시간적 부분이란 설명되지 않은 신비한 형이상학적 개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루이스는 개체들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도구로서 '시간적 부분'이란 개념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그는 개체들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신비하고 설명되지 않은 형이상학적 존재를 도입하고 있는 셈이라 할 수 있다.¹⁶⁾

15) E. J. Lowe는 이와 유사한 비판을 하고 있다. E. J. Lowe의 앞의 글.

둘째로 루이스의 이론은 변화와 관련된 우리들의 건전하고 상식적인 언어행위와 상충된다. 자신의 논문에서 백스터(D. L. M. Baxter)는 시간을 언급하는 H)와 같은 문장으로부터 모순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¹⁷⁾

H) 1946년의 피츠버그는 계리를 닮았다.¹⁸⁾

H)에 대해 '1946년의 피츠버그는 현재 존재하는가?'라고 물었다 하자. 이 경우 1946년의 피츠버그는 1946년에만 존재했을 것이므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I)일 것이다.

I) 1946년의 피츠버그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면으로 고려해 볼 때, 아래의 논증에서 보듯이 '1946년의 피츠버그는 현재 존재한다'고 해야한다. 왜냐하면 1946년의 피츠버그는 피츠버그이고 도시 피츠버그는 현재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H)와 같이 시간을 언급하는 표현에 대한 우리의 건전한 언어행위로부터 J)의 c)와 같은 모순이 도출된다.

J) I) 1946년의 피츠버그는 존재하지 않는다.

- 1) 1946년의 피츠버그는 피츠버그이다.
- 2) 피츠버그는 현재 존재한다.

c) 1946년의 피츠버그는 현재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다.¹⁹⁾

시간을 언급하는 문장들에 대한 우리들의 건전하고 상식적인 직관에 따르면 J)의 전제들은 모두 실제로 참이다. 피츠버그라는 도시는 현재 존재하므로 J)의 2)

16) 통시간적 동일성을 시간적 부분으로 설명하려는 루이스의 시도는 통세계적 동일성의 문제를 상대역(counterpart)으로 설명하는 그의 양상실재론과 동일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가능세계이론으로서의 자신의 상대역이론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통시간적 동일성의 문제를 다루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7) D. L. M. Baxter, "Identity through Time and Discernibility of Identicals", *Analysis*, 1989.

18) '피츠버그'와 '계리'는 모두 미국 도시의 이름들이다.

19) J)의 1)과 2)로부터 '1946년의 피츠버그는 현재 존재한다'가 도출된다. '1946년의 피츠버그는 현재 존재한다'는 2)에서 '피츠버그'를 '1946년의 피츠버그'로 대체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또한 c)는 J)의 1)와 '1946년의 피츠버그는 현재 존재한다'로부터 연언법칙(conjunction)에 따라 도출된다.

는 명백히 실제로 참인 문장이고 J)의 I)는 앞에서 보았듯이 시간을 언급하는 문장들에 대한 우리들의 건전하고 상식적인 직관에 따른 결과이다. 또한 J)의 I)도 실제로 참인 문장이라고 해야 한다. 1946년의 피츠버그는 1990년의 피츠버그와 2001년의 피츠버그와 마찬가지로 피츠버그 이외의 다른 것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시간을 언급하는 문장에 대한 우리들의 건전하고 상식적인 직관은 J)의 c)와 같은 모순을 야기한다고 해야 한다.

J)의 c)와 같은 모순을 벗어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J)의 전제 1)을 부정하는 것이다. 만약 1946년의 피츠버그가 피츠버그가 아니라면 '1946년의 피츠버그는 현재 존재한다'가 유도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방법이 루이스가 취하고 있는 방법이다. 루이스에 따르면 1946년의 피츠버그는 시간적 부분들로 구성되어 p-존속하는 피츠버그 자체가 아니라 피츠버그의 시간적 부분이다. 따라서 1946년에서의 피츠버그의 시간적 부분은 1946년에만 존재하므로 1946년의 피츠버그는 1946년에 존재할 뿐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방법은 언어에 대한 건전하고 상식적인 직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K)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방법에 따르면 1946년에 피츠버그에 살았던 사람은 서로 다른 두 도시에 살았다는 결론이 유도되기 때문이다.

K)

- 1) 1946년의 피츠버그는 도시이다.
- 2) 1946년의 피츠버그는 피츠버그와 다르다(다른 도시이다).
- 3) 1946년에 피츠버그에 살았던 사람들은 1946년의 피츠버그에 살았다.
- 4) 1946년에 피츠버그에 살았던 사람들은 피츠버그에 살았다.

c) 1946년에 피츠버그에 살았던 사람들은 서로 다른 두 도시에 살았다.²⁰⁾

K)는 타당한 논증이고 K)의 전제 1), 3), 4)는 시간을 언급하는 언어적 표현들에 대한 우리들의 건전하고 상식적인 직관에 따라 유도된 명제들이다. 반면에 J)의 2)는 루이스의 이론을 받아들였을 때 귀결되는 명제이다. 루이스의 이론에서는 1946년의 피츠버그는 피츠버그의 시간적 부분을 지칭하고 피츠버그는 시간적 부분들로 구성된 전체로서의 피츠버그 자체이다. 따라서 그의 이론에서 1946년의 피츠버그와 피츠버그 자체는 명백히 구별되는 다른 도시들이다. 전체를 구성하는

20) K)의 논증은 백스터의 앞의 글 126쪽부터 127쪽의 내용을 논증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시간적 부분은 시간적 부분들로 구성된 전체와는 명백히 구별되고 전체를 구성하는 한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결국 루이스의 이론을 받아들이면 J)의 c)와 같은 비합리적인 결론이 유도되고 이것은 언어에 대한 우리들의 건전하고 상식적인 직관에 근본적으로 위배된다.²¹⁾

끝으로 루이스의 p-존속이론도 엄격히 말하자면 시공 속에서의 개체의 변화를 성공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2에서 보았듯이 루이스는 두 번째 e-존속이론에 따른 시간 속에서의 개체의 변화에 대한 설명은 변화에 대한 실질적인 설명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루이스의 이론도 유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엄격히 보면 루이스의 이론에서도 내재적 속성들의 변화를 통해 존속하는 어떤 것도 인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루이스의 이론에 따르면 C)에서 일정한 시간 t에서 B(굽었다)라는 내재적 속성을 소유한 것은 p-존속하는 a가 아니라 a의 시간적 부분이고 t 이후의 시간 t'에서 B 대신에 S(곧다)라는 속성을 소유한 것은 p-존속하는 a자체도 t에서의 A의 시간적 부분도 아닌 t'에서의 A의 시간적 부분이고, 이들 셋은 모두 서로 구별되는 다른 존재들이다. 따라서 t에서 B라는 속성을 가진 대상과 t'에서 S라는 속성을 가진 대상은 동일한 대상이 아니므로 한 대상이 일정한 시간 t로부터 t 이후의 시간 t'를 거쳐 내재적 속성의 변화를 겪었다고 할 수 없다. 루이스는 p-존속하는 개체로서의 a자체가 t(B속성을 가진 때)로부터 t'(S속성을 가진 때)까지의 내재적 속성의 변화를 겪은 당사자라고 할 수 없다. B(굽었다)와 S(곧다)와 같은 내재적 속성을 소유한 것은 a자체가 아니라 a의 시간적 부분들이고 a 자체는 a의 시간적 부분들이 아니라 a의 시간적 부분들로 구성된 전체이기 때문이다. 만약 p-존속하는 a 자체가 B나 S와 같은 내재적 속성을 직접적으로 가진다고 할 경우 루이스의 이론은 C)에서의 모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결국 기껏해야 루이스의 이론에서는 p-존속하는 a는 'B(굽은)한 시간적 부분을 가진다'는 속성과 'S(곧은)한 시간적 부분을 가진다'는 속성을 가진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A의 시간적 부분들과 p-존속하는 a 자체는 서로 다른 존재들이므로 'B(굽었다)한 시간적 부분을 가진다'는 속성은 p-존속하는 a와 B란 속성을 가진 시간적 부분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루이스의 이론에서는 시간 속에서 개체가 변화할 경우 그 변화의 주체가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만약 시간적 경과를 통해 개체가 변화했다고 할 때 변화를 겪는 주체가

21) 백스터는 개체의 변화와 관계된 문제는 'as'나 "not"같은 표현의 scope의 애매성 때문에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스터의 앞의 글, 130~131쪽.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면 그의 이론은 2.2의 이론처럼 개체의 변화에 대한 실질적인 설명을 표기한 셈이라 할 수 있다.

4.

변화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직관은 e-존속을 옹호한다. 한 사람 길동이가 오늘 긴 머리를 깎았을 경우 어제 긴 머리를 가지고 있던 바로 그 길동이 자신이 오늘 머리를 깎았다고 이해하는 것이 상식적인 직관일 것이기 때문이다. 어제 머리가 길었던 길동이를 길동이의 시간적 부분으로 취급하는 루이스의 이론은 이러한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직관에 위배된다.

루이스는 e-존속을 옹호하는 이론들은 C)에서와 같은 모순을 야기하거나 내재적 속성의 변화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그의 이론은 엄밀히 말해서 내재적 속성의 변화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개체들의 시간적 부분이라는 설명되지 않은 새로운 형이상학적 존재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e-존속을 옹호하는 이론들은 시간을 통한 개체들의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는 그의 결론은 e-존속이론들에 대한 그의 비판이 옳더라도 너무 성급한 결론이다. 루이스는 e-존속으로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들은 2에서 비판한 두 가지 종류 중 하나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두 가지에 속하지 않지만 e-존속을 옹호하는 이론들이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로위(E. J. Lowe)의 이론이나 치즘(R. Chisholm)의 이론, 또한 최근의 메릭(T. Merrick)의 이론과 백스터의 이론들은²²⁾ 루이스가 분류한 e-존속이론의 두 종류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e-존속을 옹호하는 이론들이라 할 수 있다.²³⁾²⁴⁾

22) 앞에 인용된 글들을 참조하라.

23) 개체의 개별화의 법칙으로서 라이프니츠의 법칙을 포기하면 본고에서 고려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로 블랙(M. Black)이 라이프니츠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가능성을 보이는 반예를 제시한 이래 많은 철학자들은 개별화의 원칙으로서의 라이프니츠의 법칙의 정당성을 의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캐슬로(A. Casullo)는 PII나 CPII는 필연적 참이 아니라 우연적 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레드헤드(M. Redhead)나 프렌치(S. French)같은 철학자는 양자역학에서의 최근의 발견에 입각하여 PII나 CPII는 우연적 참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M. Black, "The Identity of Indiscernibles", *Philosophy of Science* (1982), M. Redhead & S. French, "Quantum Physics and the Identity of Indiscernibles", *British Journal for the Journal of Philosophy* (1989), S. French, "Hacking Away at the Identity of Indiscernibles: Possible Worlds and Einstein's Principle of Equivalence", *J. P.* (1995).

24) 본 논문에 대해 세심한 논평을 해주신 두 분의 심사위원께 감사한다.

참고문헌

- 손병홍, 「라이프니츠의 법칙과 헤세이티즘」, 『논리연구』, 제2집, 1998.
- Armstrong, D. M., "Identity through Time", in P. Van Inwagen(ed.), *Time and Cause*, Boston: Reidel, 1980.
- Baxter, D. L. M., "Identity through Time and Discernibility of Identicals", *Analysis*, 1989.
- Black, M., "The Identity of Indiscernibles", *Philosophy of Science*, 1982.
- Brody, B., *Identity and Essence*, Princeton Univ. Press, 1980.
- Chisholm, R., *Person and Object*, LaSalle, IL: Open Court, 1976.
- French, S., "Hacking Away at the Identity of Indiscernibles: Possible Worlds and Einstein's Principle of Equivalence", *J. P.*, 1995.
- Halslanger, S., "Endurance and Temporary Intrinsics", *Analysis*, 1989.
- Johnston, M., "Is There a Problem about Persistence",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Supp. Vol. LXI, 1987.
- Jubien, M., *Ontology, Modality and Fallacy of Reference*, New York: Cambridge, 1933.
- Lewis, D., *On the Plurality of Worlds*, Oxford: Basil Blackwell, 1986.
- *Papers in Metaphysics and Epistemology*, Cambridge Univ. Press, 1999.
- Lowe, E. J., "Lewis on Perdurantism versus Endurance", *Analysis*, 1987.
- Merrick, T., "Endurance and Indiscernibility", *J. P.*, 1994.
- Moravcsik, J. M. E., "The Discernibility of Identicals", *J. P.*, 1976.
- Redhead, M. & S. French, "Quantum Physics and the Identity of Indiscernibles", *British Journal for the Philosophy of Science*, 1989.
- Russell, B., *An Inquiry into Meaning and Truth*, Baltimore: Penguin, 1972.
- Van Inwagen, P., *Time and Cause*, Boston: Reidel, 1980.
- "Four-dimensional Objects", *Nous*, 1990.
- Whitehead, A. & B. Russell, *Principia Mathematica to 56*, Cambridge Univ. Press, 1979.